



Korea | Seoul

„MP3- 납치“

밤에 Mp3 크게 듣고 걸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몰래 이렇게 살살 따라가 납치해가는 연쇄 살인마가 있다는 소문이 있었어요. 일명 MP3 살인마라고.

별로 친하지는 않은 친구인데 그 친구가 얘기해 주더라 구요. 어느 비 오는 날인데 자기 여자 친구랑 데이트를 하고 여자친구의 집 근처까지 바래다주고 돌아왔대요. 돌아오는 데 문득 그 MP3 살인마 생각이 나는 거예요. 왜냐하면 그 여자친구는 굉장히 크게 듣는 습관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걱정이 돼서 핸드폰으로 전화를 했는데 신호는 계속 가는데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.

„뭘야! 무슨 일 일어난 거 아니야?“ 이래 가지고 이 친구 그냥 빗속을 뚫고 열심히 뛰어갔대요. 근데 다행히 그 여자친구는 자기 집 쪽으로 이렇게 쪽 골목으로 걸어가고 있었대요. 안심 해가지고 한번 깜짝 놀라게 주자! 그래서 이제 살금살금 뒤를 쫓아가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벤 하나가 휙 지나가더니 그 여자친구 앞에 딱 서더니 그냥 납치해 간 거예요. 그 친구 열심히 쫓아갔는데 결국 차를 잡을 수 없었죠.

땅바닥에 그냥 듣던 MP3 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.

그 친구 그 뒤로 자기 여자친구 소식 전혀 들은 거 없다 그러죠?

밤에 Mp3 너무 크게 듣지 마세요.

Copyright: Goethe-Institut Korea, 2012